

#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8년 11월 10일

보고서 제출자 : 김 명 호

(사)통일문제연구원

## 제1장 연구 개요

2018년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그리고 9월 20일과 21일에 평양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강원도의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남북통일 정책’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① ‘응답자의 인적사항’, ② ‘통일 정책 문제’, ③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SPSS V.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대상’ 등은 3개의 답변이 가능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릉원주대학교 학생들(강릉캠퍼스 및 원주캠퍼스)과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745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34부를 제외하고, 711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제2장 기초자료 분석

### 제1절 인적사항

#### 1. 성별

설문지에 답한 사람은 ‘남자’가 376명(53.9%), ‘여자’가 335명(47.1%)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남자	376	52.9	52.9	52.9
	여자	335	47.1	47.1	100.0
	Total	711	100.0	100.0	

#### 2. 나이

설문지에 답한 사람들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175명(24.6%), ② ‘21-30세’ 384명(54%), ③ ‘31-40세’ 49명(6.9%), ④ ‘41-50세’ 42명(5.9%), ⑤ ‘51-60세’ 46명(6.5%), ⑥ ‘61세 이상’ 15명(2.1%)으로 나타났다.

<표 1-2> 나이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20세이하	175	24.6	24.6	24.6
	21-30세	384	54.0	54.0	78.6
	31-40세	49	6.9	6.9	85.5
	41-50세	42	5.9	5.9	91.4
	51-60세	46	6.5	6.5	97.9
	61세이상	15	2.1	2.1	100.0
	Total	711	100.0	100.0	

### 3. 직업

설문지에 답한 사람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① ‘대학 1학년’ 215명(30.2%), ② ‘대학 2학년’ 133명(18.7%), ③ ‘대학 3학년’ 131명(18.4%), ④ ‘대학 4학년’ 70명(9.8%), ⑤ ‘일반인’ 162명(22.8%)으로 나타났다.

<표 1-3> 직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대학1학년	215	30.2	30.2	30.2
	대학2학년	133	18.7	18.7	48.9
	대학3학년	131	18.4	18.4	67.4
	대학4학년	70	9.8	9.8	77.2
	일반인	162	22.8	22.8	100.0
	Total	711	100.0	100.0	

### 제2절 통일 정책 문제

####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①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50명(21.1%), ② ‘조금 필요하다’ 231명(32.5%), ③ ‘보통이다’ 180명(25.3%), ④ ‘아직 시기상조다’ 129명(18.1%), 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19명(2.7%)으로 나타났으며, 53.7%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통일의 필요성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50	21.1	21.2	21.2
	조금 필요하다	231	32.5	32.6	53.7
	보통이다	180	25.3	25.4	79.1
	아직 시기상조다	129	18.1	18.2	97.3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19	2.7	2.7	100.0
	Total	709	99.7	100.0	
Missing	System	2	.3		
Total		711	100.0		

#### 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통일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98명(27.8%), ②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307명(43.2%), ③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82명(11.5%), ④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24명(17.4%) 등으로 나타났다. 즉, 질문에 답한 사람들의 71.0%가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98	27.8	27.8	27.8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307	43.2	43.2	71.0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82	11.5	11.5	82.6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24	17.4	17.4	100.0
	Total	711	100.0	100.0	

### 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① ‘100% 가능하다’ 75명(10.5%), ② ‘50% 정도 가능하다’ 359명(50.5%), ③ ‘20~30% 정도 가능하다’ 226명(31.8%), ④ ‘불가능하다’ 31명(4.4%), ⑤ ‘모르겠다’ 20명(2.8%)으로 나타나 92.8%가 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100% 가능하다	75	10.5	10.5	10.5
	50% 정도 가능하다	359	50.5	50.5	61.0
	20~30% 정도 가능하다	226	31.8	31.8	92.8
	불가능하다	31	4.4	4.4	97.2
	모르겠다	20	2.8	2.8	100.0
	Total	711	100.0	100.0	

### 4.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남북통일의 실현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① ‘아주 빠를 것이다’ 22명(3.1%), ② ‘조금 빠를 것이다’ 229명(32.2%), ③ ‘조금 늦을 것이다’ 291명(40.9%), ④ ‘아주 늦을 것이다’ 125명(17.6%), ⑤ ‘불가능할 것이다’ 44명(6.2%)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통일

이 빠를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아주 빠를 것이다	22	3.1	3.1	3.1
	조금 빠를 것이다	229	32.2	32.2	35.3
	조금 늦을 것이다	291	40.9	40.9	76.2
	아주 늦을 것이다	125	17.6	17.6	93.8
	불가능 할 것이다	44	6.2	6.2	100.0
	Total	711	100.0	100.0	

#### 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국가안보에 대한 귀하의 관심도는 ① ‘관심이 아주 많다’ 113명(15.9%), ② ‘관심이 조금 많다’ 181명(25.5%), ③ ‘보통이다’ 329명(46.3%), ④ ‘관심이 조금 없다’ 60명(8.4%), ⑤ ‘관심이 아주 없다’ 13명(1.8%), ⑥ ‘모르겠다’ 15명(2.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6%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관심이 아주 많다	113	15.9	15.9	15.9
	관심이 조금 많다	181	25.5	25.5	41.4
	보통이다	329	46.3	46.3	87.6
	관심이 조금 없다	60	8.4	8.4	96.1
	관심이 아주 없다	13	1.8	1.8	97.9
	모르겠다	15	2.1	2.1	100.0
	Total	711	100.0	100.0	

## 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은 ① ‘가급적 빠른 통합’ 141명(19.8%), ②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 467명(65.7%), ③ ‘현 체제 유지’ 98명(13.8%)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하기로 원하는 응답자가 65.7%로 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가급적 빠른 통합	141	19.8	20.0	20.0
	평화체제 유지와 별개국가로 존속	467	65.7	66.1	86.1
	현 체제 유지	98	13.8	13.9	100.0
	Total	706	99.3	100.0	
Missing	System	5	.7		
Total		711	100.0		

## 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① ‘한미 간 협력’ 119명(16.7%), ② ‘북미 간 협력’ 59명(8.3%), ③ ‘한중 간 협력’ 46명(6.5%), ④ ‘한일 간 협력’ 7명(1.0%), ⑤ ‘한미일 간 협력’ 37명(5.2%), ⑥ ‘한미북 간 협력’ 438명(61.6%)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임을 나타내었다.

<표 2-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한미간 협력	119	16.7	16.9	16.9
	북미간 협력	59	8.3	8.4	25.2
	한중간 협력	46	6.5	6.5	31.7
	한일간 협력	7	1.0	1.0	32.7
	한미일간 협력	37	5.2	5.2	38.0
	한미북간 협력	438	61.6	62.0	100.0
	Total	706	99.3	100.0	
Missing	System	5	.7		
Total		711	100.0		

## 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 263명(36.8%), ② ‘평화협정 체결’ 166명(23.3%), ③ ‘남북 간 경제협력’ 90명(12.7%), ④ ‘북한의 개혁·개방’ 128명(18.0%),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43명(6.0%) 등으로 나타났다.

<표 2-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북한의 비핵화 조치	262	36.8	37.0	37.0
	평화협정 체결	166	23.3	23.4	60.4
	남북 간 경제 협력	90	12.7	12.7	73.1
	북한의 개혁·개방	128	18.0	18.1	91.1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43	6.0	6.1	97.2
	기타	20	2.8	2.8	100.0
	Total	709	99.7	100.0	
Missing	System	2	.3		
Total		711	100.0		

## 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망은 ① ‘크게 개선될 것이다’ 91명(12.8%), ② ‘조금 개선될 것이다’ 326명(45.9%), ③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215명(30.2%), ④ ‘조금 악화될 것이다’ 55명(7.7%), ⑤ ‘아주 악화될 것이다’ 20명(2.8%)으로 나타났다. 즉, 59%의 응답자들은 국가 안보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2-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크게 개선될 것이다	91	12.8	12.9	12.9
	조금 개선될 것이다	326	45.9	46.1	59.0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215	30.2	30.4	89.4
	조금 악화될 것이다	55	7.7	7.8	97.2
	아주 악화될 것이다	20	2.8	2.8	100.0
	Total	707	99.4	100.0	
Missing	System	4	.6		
Total		711	100.0		

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아주 잘하고 있다’ 103명(14.5%), ② ‘조금 잘하고 있다’ 184명(25.9%), ③ ‘보통이다’ 300명(42.2%), ④ ‘조금 못하고 있다’ 83명(11.7%), ⑤ ‘아주 못하고 있다’ 40명(5.6%)으로 나타났다. 즉, 82.7%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아주 잘 하고 있다	103	14.5	14.5	14.5
	조금 잘 하고 있다	184	25.9	25.9	40.4
	보통이다	300	42.2	42.3	82.7
	조금 못하고 있다	83	11.7	11.7	94.4
	아주 못하고 있다	40	5.6	5.6	100.0
	Total	710	99.9	100.0	
Missing	System	1	.1		
Total		711	100.0		

### 제3절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 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에 대하여 ①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441명(62.0%), ②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109명(15.3%), ③ ‘모르겠다’ 10명(21.1%)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62%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여 분단의 세월이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441	62.0	63.0	63.0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109	15.3	15.6	78.6
	모르겠다	150	21.1	21.4	100.0
	Total	700	98.5	100.0	
Missing	System	11	1.5		
	Total	711	100.0		

#### 2. 북한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33명(46.8%)를 차지하여, 긴박한 남북관계를 응답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북한에 대한 생각 1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333	46.8	47.2	47.2
	협력의 대상이다	299	42.1	42.4	89.6
	통일의 대상이다	48	6.8	6.8	96.5
	경계의 대상이다	9	1.3	1.3	97.7
	도움의 대상이다	8	1.1	1.1	98.9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5	.7	.7	99.6
	우리의 적이다	3	.4	.4	100.0
	Total	705	99.2	100.0	
Missing	System	6	.8		
Total		711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2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③ 통일의 대상이다’가 360명(50.6%)로, 반 이상의 응답자가 남북한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북한에 대한 생각 2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12	1.7	1.8	1.8
	협력의 대상이다	132	18.6	20.0	21.9
	통일의 대상이다	360	50.6	54.6	76.5
	경계의 대상이다	121	17.0	18.4	94.8
	도움의 대상이다	24	3.4	3.6	98.5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10	1.4	1.5	100.0
	Total	659	92.7	100.0	
Missing	System	52	7.3		
Total		711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3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⑤ 도움의 대상이다’ 195명(27.4%)으로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로 ‘④ 경계의 대상이다’ 174명(24.6%)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기도 함을 나타내었다.

<표 3-4> 북한에 대한 생각 3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10	1.4	1.5	1.5
	협력의 대상이다	9	1.3	1.4	2.9
	통일의 대상이다	95	13.4	14.6	17.5
	경계의 대상이다	174	24.5	26.7	44.2
	도움의 대상이다	195	27.4	29.9	74.1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87	12.2	13.3	87.4
	우리의 적이다	82	11.5	12.6	100.0
	Total	652	91.7	100.0	
Missing	System	59	8.3		
Total		711	100.0		

### 3.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하여 ① ‘아주 좋다’ 9명(1.3%), ② ‘조금 좋다’ 25명(3.5%), ③ ‘보통이다’ 257명(36.1%), ④ ‘조금 안좋다’ 186명(26.2%), ⑤ ‘아주 안좋다’ 227명(31.9%)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58.1%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아주 좋다	9	1.3	1.3	1.3
	조금 좋다	25	3.5	3.6	4.8
	보통이다	257	36.1	36.5	41.3
	조금 안좋다	186	26.2	26.4	67.8
	아주 안좋다	227	31.9	32.2	100.0
	Total	704	99.0	100.0	
Missing	System	7	1.0		
Total		711	100.0		

### 4.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①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160명(22.5%), ② ‘소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339명(47.7%), ③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78명(11.0%) , ④ ‘모르겠다’ 127명(17.9%)으로 나타났다. 즉, 응

답자의 70.9%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3-6>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160	22.5	22.7	22.7
	소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339	47.7	48.2	70.9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78	11.0	11.1	82.0
	모르겠다	127	17.9	18.0	100.0
	Total	704	99.0	100.0	
Missing	System	7	1.0		
Total		711	100.0		

#### 5.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① ‘100% 포기할 것이다’ 44명(6.2%), ② ‘50% 정도 가능하다’ 244명(34.3%), ③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285명(40.1%), ④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52명(7.3%), ⑤ ‘모르겠다’ 76명(10.7%)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1.1%)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47.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100% 포기할 것이다	44	6.2	6.3	6.3
	50% 정도 가능하다	244	34.3	34.8	41.1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285	40.1	40.7	81.7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52	7.3	7.4	89.2
	모르겠다	76	10.7	10.8	100.0
	Total	701	98.6	100.0	
Missing	System	10	1.4		
Total		711	100.0		

## 6. 복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복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에 대하여 ① ‘100% 가능하다’ 60명(8.4%), ② ‘50% 정도 가능하다’ 268명(37.7%), ③ ‘조금 어렵다’ 276명(38.8%), ④ ‘절대 불가능하다’ 47명(6.6%), ⑤ ‘모르겠다’ 47명(6.6%)으로 나타났다. 즉, 복핵문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46.1%)가 많지만, 복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45.4%)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복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100% 가능하다	60	8.4	8.6	8.6
	50% 정도 가능하다	268	37.7	38.4	47.0
	조금 어렵다	276	38.8	39.5	86.5
	절대 불가능하다	47	6.6	6.7	93.3
	모르겠다	47	6.6	6.7	100.0
	Total	698	98.2	100.0	
Missing	System	13	1.8		
	Total	711	100.0		

## 7.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의 첫 번째 내용은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445명(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최우선 대북정책 1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북한의 비핵화 조치	445	62.6	63.8	63.8
	평화협정 체결	134	18.8	19.2	83.1
	남북간 경제협력	53	7.5	7.6	90.7
	북한의 개혁 및 개방	35	4.9	5.0	95.7
	남북간 이산가족상봉	20	2.8	2.9	98.6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6	.8	.9	99.4
	남북간 문화 및 체육교류	4	.6	.6	100.0
	Total	697	98.0	100.0	
Missing	System	14	2.0		
Total		711	100.0		

그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은 ‘② 평화협정 체결’로 287명(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최우선 대북정책 2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북한의 비핵화 조치	46	6.5	6.7	6.7
	평화협정 체결	287	40.4	41.7	48.4
	남북간 경제 협력	107	15.0	15.6	64.0
	북한의 개혁 및 개방	143	20.1	20.8	84.7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	61	8.6	8.9	93.6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33	4.6	4.8	98.4
	남북간 문화 및 체육교류	7	1.0	1.0	99.4
	남북간 교육협력	4	.6	.6	100.0
	Total	688	96.8	100.0	
Missing	System	23	3.2		
Total		711	100.0		

3번째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으로 ‘④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이 155명(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③ 남북간 경제 협력’도 147명(20.7%)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따른 남북한 사이의 경제 협력의 모색을 응답자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최우선 대북정책 3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북한의 비핵화 조치	25	3.5	3.6	3.6
	평화협정 체결	31	4.4	4.5	8.2
	남북간 경제 협력	147	20.7	21.5	29.6
	북한의 개혁 및 개방	155	21.8	22.6	52.3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	106	14.9	15.5	67.7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116	16.3	16.9	84.7
	남북간 문화 및 체육교류	62	8.7	9.1	93.7
	남북간 교육협력	43	6.0	6.3	100.0
	Total	685	96.3	100.0	
Missing	System	26	3.7		
Total		711	100.0		

8.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① 한국’이 470명(66.1%)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③ 북한’ 290명(40.8%), ‘② 미국’ 225명(3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1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한국	470	66.1	67.3	67.3
	미국	50	7.0	7.2	74.5
	북한	154	21.7	22.1	96.6
	중국	3	.4	.4	97.0
	일본	4	.6	.6	97.6
	러시아	1	.1	.1	97.7
	국제사회	8	1.1	1.1	98.9
	시민단체	1	.1	.1	99.0
	한국 국민 개개인	7	1.0	1.0	100.0
	Total	698	98.2	100.0	
Missing	System	13	1.8		
Total		711	100.0		

<표 3-13>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2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한국	107	15.0	15.4	15.4
	미국	225	31.6	32.4	47.8
	북한	290	40.8	41.8	89.6
	중국	38	5.3	5.5	95.1
	일본	3	.4	.4	95.5
	러시아	3	.4	.4	96.0
	국제사회	16	2.3	2.3	98.3
	기업	6	.8	.9	99.1
	한국 국민 개개인	6	.8	.9	100.0
	Total	694	97.6	100.0	
Missing	System	17	2.4		
	Total	711	100.0		

<표 3-14>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3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한국	40	5.6	5.8	5.8
	미국	84	11.8	12.1	17.9
	북한	173	24.3	25.0	42.9
	중국	81	11.4	11.7	54.5
	일본	12	1.7	1.7	56.3
	러시아	7	1.0	1.0	57.3
	국제사회	139	19.5	20.1	77.3
	기업	22	3.1	3.2	80.5
	한국 국민 개개인	135	19.0	19.5	100.0
	Total	693	97.5	100.0	
Missing	System	18	2.5		
	Total	711	100.0		

###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2018년의 남북관계는 3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2018년 4월, 5월, 9월 문재인-김정은 사이에서 모두 5차례가 열렸다. 그러나 1994년 7월 25일 김영삼-김일성의 정상회담은 불발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위협하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첩예한 대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하여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과 인권문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강원도 소재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33명(46.8%)를 차지하여, 긴박한 남북관계를 응답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1.1%)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47.4%)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8.1%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263명(36.8%), 그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은 ‘평화협정 체결’로 287명(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번째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이 155명(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우방인 미국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중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